

<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목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과정>도 좋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목적>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과정을 희망 있게 보내며 행한다.
 2. <목적>은 모든 뜻을 이룬 것이다. 그 단계에서는 완성하고 쓰고 사니 보람이다.
 3. (* 화면을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아래 논에서만 만족하고 살면, 평생 위에 있는 더 좋은 논에 못 올라간다. (그림 있음)
 4. 사람이 자기 뇌 생각의 차원대로 그 단계에 처해 살면서 “더 아래 차원에 안 가서 다행이다.” 하며 만족하면서 산다. 실상 이 사람은 7단계까지 올라갈 복을 타고난 자다. 그러나 자기 위치에 만족하면 “그래도 여기까지 못 올랐는데 많은데, 나는 그들보다 낫다.” 하며 만족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자다. / 신앙의 삶도, 인생의 삶도 그러하다. 한없는 도전이다! 이상세계를 향한 도전이다!
 5. 종교도 그러하다.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와야 변화되고, 하나님이 시대에 주신 혜택을 받는다. 새 시대로 오지 않고 구시대에 머물면서 자체적으로 혀가 한 자나 빠지게 아무리 수고해도 구시대 주관권에서 조금 나아지는 신세다.
 6.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안 오는 자들은 고욤나무, 돌감나무, 돌포도나무와 같다.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와 접붙여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아무리 발달해도 역시 돌감만 연다. 이와 같이 구시대 자체적인 발달은 아무리 해도 구시대 주관권이다.
 7. 새 시대가 왔는데 새 시대로 안 오고 구시대에 머무는 자같이 불쌍한 자도 없다.
 8. 새 시대 사명자가 왔는데 구시대에 있는 자는 마치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계속 식민으로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종같이 사는 자들과 같다.
 9. 구약 4000년 동안은 ‘종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4000년 동안 ‘종 주관권’을 벗어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삯으로 4000년 연대죄 형벌 기간을 선고했기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종 주관권’을 못 벗어났다.
- 4000년 형벌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종 주관권을 벗어나라.” 하셨다.
- ‘종 주관권’을 벗어나려면...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 기간이 끝나야 했다. 둘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계속

아담으로 인한 ‘구약 연대죄 주관권’ 아래에 있는 것이었다.

4000년 형벌 기간도 끝났고 메시아도 왔으니, 예수님만 메시아로 믿고 따르면 ‘종 주관권’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무지하여 예수님을 안 믿었고, 계속 ‘종 주관권’에 머물렀다.

이 시대도 구시대가 새 시대 앞에 그러하다.

10. 신약 때 메시아를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구원역사를 펴면서, 동시에 형벌 기간을 보냈다.

그 기간이 끝나니, 성자가 다시 와서 땅에서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를 자신의 몸으로 삼고,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 말씀을 믿고 신약 구시대 주관권에서 나오면 재림과 휴거의 은혜를 받고 신부의 몸이 된다.

그러나 안 오니, 신약 주관권에서 계속 구속을 받고 이 시대 구원의 혜택을 못 받는다. 신약 주관권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치며 발전을 이뤄도 그 주관권 안의 발전일 뿐이다.

성경을 보면, 새 시대가 시작되면 구시대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듯이 빛을 잃는다고 했다. 새 역사가 오면... 새 역사가 낮이 되고, 구역사는 밤이 된다. 시간이 갈수록 밤은 더 깊어 가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잠을 자게 된다.

그 주관권에서 나오지 않으면, 구원의 차원도 높이지 못한다. 이는 절대적이다. 구약에서 신약 차원의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구시대 신약 주관권에서는 성자의 새 역사인 재림과 휴거 역사와 이상세계는 못 얻는다. 이미 구시대를 다 겪고 왔다.

11. 개인도 절대 <옛 주관권>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새 주관권>으로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계속 옛 주관권 삶을 살아야 된다.

12. 사람의 소원은 계속 차원을 높이며 사는 삶이다.

13. 자기 삶의 시대 차원에서 벗어나고, 낮은 데서 계속 나오기다. 이는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고, 희망의 세계다.

14. <행복>은 차원을 높여야 온다.

15. 행복은 있다. 그러나 차원 높은 곳에 있다. 그러니 행복하려면 차원 높여 살아라